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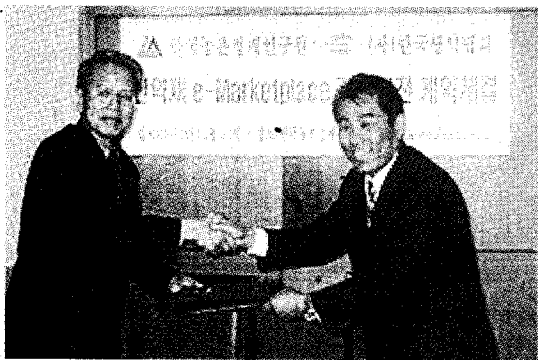
한약재 e-마켓플레이스 본격 가동 국산한약재 경매 역경매를 통한 직거래 추진

순수 국산한약재만 판매하는 e-마켓플레이스가 오픈했다.

지난 2001년부터 농림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나루시스템(대표 김경식)이 공동 개발한 한약재 e-마켓플레이스 'e-허브(www.e-herb.co.kr)'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농림부 산하 국산한약재 생산자단체로서, 시스템 개발업체인 나루시스템과 e-마켓플레이스를 공동운영하게 될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는 12월 23일 농경연 연구팀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시범운영해 온 e-Marketplace를 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증된 회원간 경매나 역경매 방식으로 국산 한약재의 도매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갖추고 수수료를 받아



◆ 기술이전 계약을 교환하는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장과 생약협회 엄경섭 회장.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형이다.

'e-herb'에는 한약재의 경매, 역경매 외에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건강식품쇼핑몰이 있으며 한약재의 효능과 음용법, 한방 다이어트나 식이요법, 민간요법과 몸에 좋은 보약, 건강식품 등 다양한 한방정보가 제공된다.

한국생약협회 엄경섭회장은 "그동안에는 수집상에

의존하는 다단계 유통구조와 값싼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 영향으로 생산농가에서는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제값받기'가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e-herb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수한 토종 국산한약재를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국산한약재를 공매 시스템을 통해 직접 올려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매 또는 역경매 형태로 거래에 참여하는 e-Marketplace 구축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이 기대된다.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되, 공급회원으로서는 전국의 약초농업조합법인 및 약용작물작목반·대규모생산

농가·제조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요자회원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제약회사·식품가공업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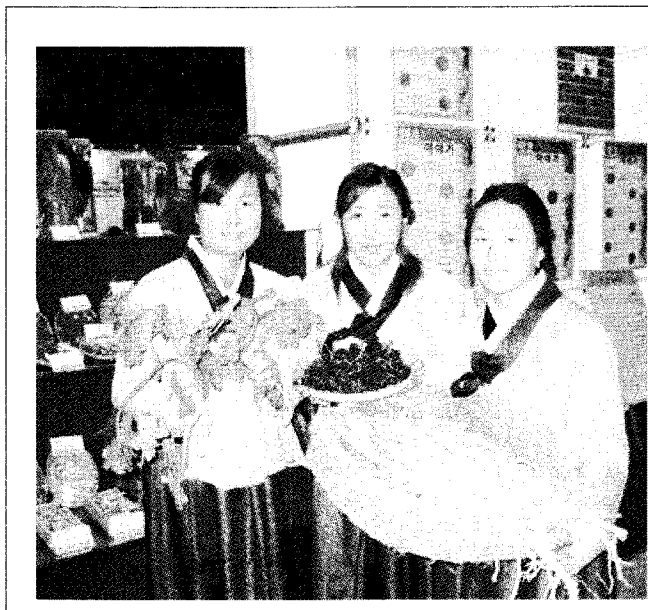
한국생약협회 엄경섭회장은 또 "e-허브 경매물품 입찰참여기회는 제한없이 개방되 거래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경매 물품 공급회원들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인 사업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내년부터는 국산한약재 경매 역경매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herb는 초기의 소비자 대상 B2C에서 B2B로, 다수의 B2B 및 B2C가 공존하는 e-마켓플레이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정희)

지 면 안 내

- 엄경섭 회장 신년사 3면
- 약용작물 GAP 시범 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4,5면
- 전시행사 이모저모 7면



제5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성황

제5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KBS 88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생산농민 약 400여명과 관련기관 및 단체장들이 내빈으로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번 5회 전시행사는 지난 97년 이후 중단됐다가 6년여만에 다시 재개한 행사여서 더 의미가 있다.

(관련내용 7면)

한약재

e-herb

e-herb는 한약재 경매, 역경매, 건강식품 쇼핑몰 및 한약재와 한방에 관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e-herb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수한 토종 국산한약재를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국산한약재를 경매시스템을 통해 직접 올려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습니다.

* e-herb에 약재를 등록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농민 개인은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2. 한국생약협회 홈페이지(KoreaHerb.or.kr)나 e-herb.co.kr에 접속하기.
3. 경매참여하기에서 물품 등록 하기.